

VIDEO PORTRAIT

04. 27 THU ————— 06. 18 SUN

TOTAL MUSEUM × THE STREAM
OF CONTEMPORARY ART Korean Media Art Festival

기간 |
2017. 04. 27(목) - 06. 18(일)

장소 |
토탈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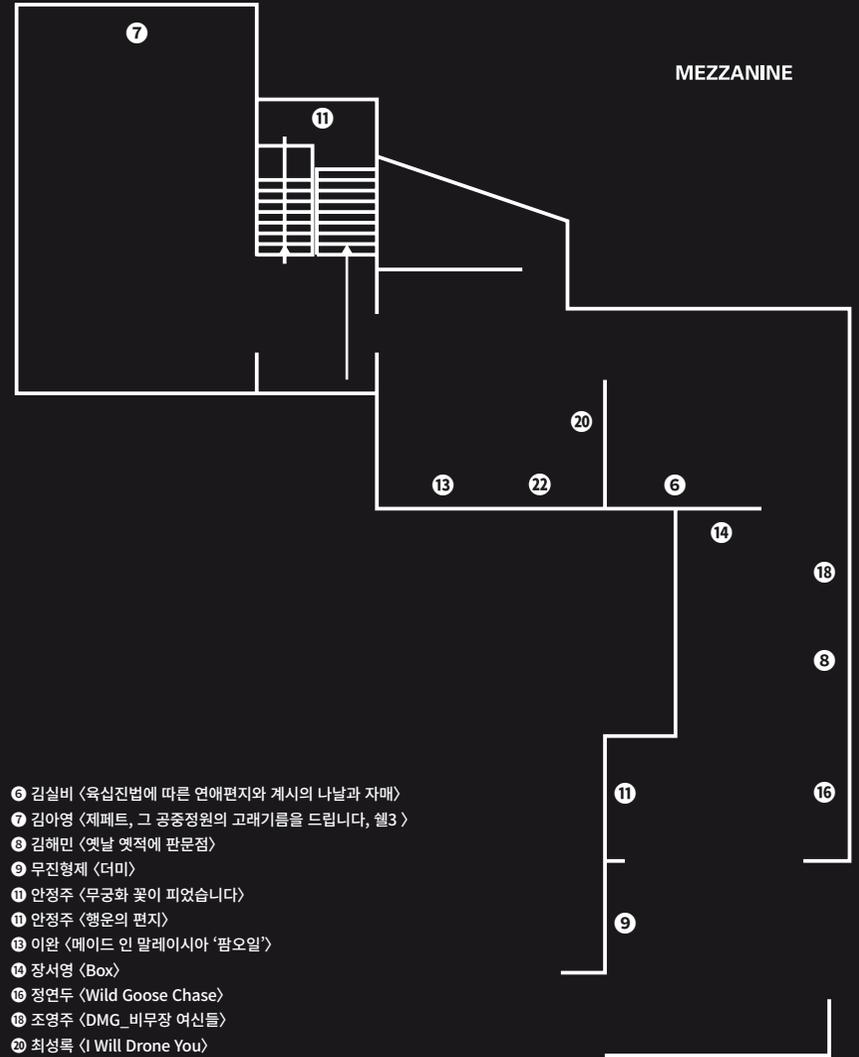
클로징파티
2017. 06. 18(일) 15:00

큐레이터 |
신보슬(토탈미술관)

협력큐레이터 |
정세라(더 스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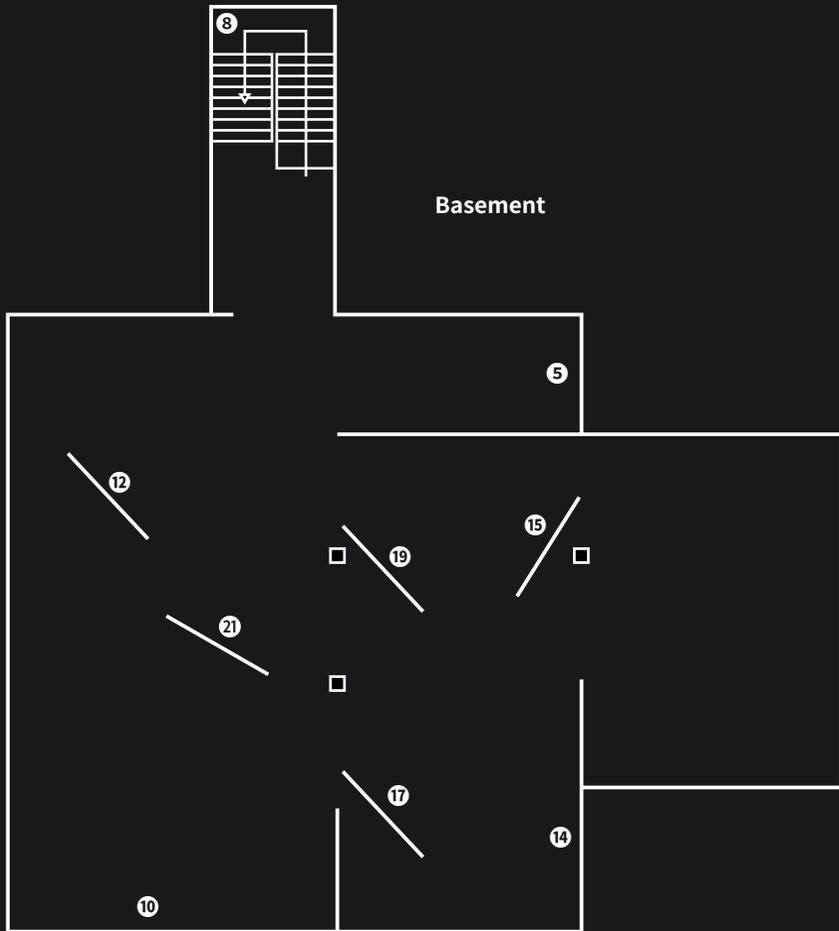
참여작가 |
김세진·김실비·김아영·김해민·
무진형제·박병래·안정주·
육인클레티브·이완·장서영·전소정·
정연두·정은영·조영주·추연우·
최성록·최윤석·엘리 허경란

후원 |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6 김실비 <육십진법에 따른 연애편지와 계시의 나날과 자매>
- 7 김아영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웰3>
- 8 김해민 <옛날 옛적에 판문점>
- 9 무진형제 <더미>
- 11 안정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11 안정주 <행운의 편지>
- 13 이완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팜오일'>
- 14 장서영 <Box>
- 16 정연두 <Wild Goose Chase>
- 18 조영주 <DMG_비무장 여신들>
- 20 최성록 <I Will Drone You>
- 22 엘리 허경란 <잔치국수>

- 5 김세진 <열망으로의 접근>
- 8 김해민 <접촉 불량>
- 10 박병래 <Elastic Cord Playing>
- 12 옥인 콜렉티브 <서울 데카당스-Live>
- 14 장서영 <In the Box>
- 15 전소정 <Three Ways to Elis>
- 17 정은영 <정동의 막>
- 19 주연우 <Swarm Circulation>
- 21 최윤석 <Chronicle of Mr. Kim>



열망으로의 접근(Proximity of Longing), 1채널, 컬러, 16'50", 2016

II

김세진 b. 1971, 서울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미디어과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영국의 슬레이드 미술대학(UCL)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한 김세진은 영상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여러 시스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고립과 고독, 불안과 같은 삶의 결핍과 같은 간극에 주목하고 있다.
<http://sejinkimstud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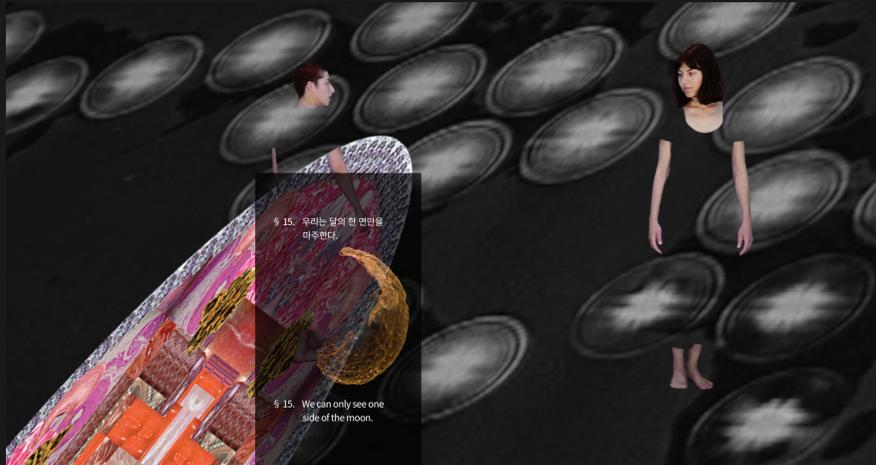
세 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연작인 <열망으로의 접근>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주, 이민 현상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사와 역사적 토대 그리고 집단적 유토피아가 어떻게 국가 혹은 사회라는 거대한 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묻는다. 또한, 21세기의 신자본주의, 세계주의와 같은 각종 이즘의 유토피아적 이미지의 허상과 부재에 관해 그래픽적 무빙이미지, 오픈소스들과 사운드 그리고 실제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하고 있다. 에피소드 중 <12개의 의자>는 과거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의 입국 관문이었던 미국 동부, 뉴욕 맨하튼 부근의 엘리스 섬의 폐허에서 발견한 “의자”를 소재로 소위 제국이라 불리는 강대국들의 과거에서부터 행해진 권력과 권위가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력의 의미를 제시한다. 그 반대로 두 번째 <엔젤섬>에서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위치한 엔젤섬에서의 과거 에피소드로서 아시아 이민자들이 겪은 마이너리티로서의 처우와 삶의 부조리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로 그들이 남긴 “시”를 소재로 완성한다. 마지막 <뜨르틸라 치난틸라>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이민사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인 “뜨르틸라”를 소재로 국가 간 정책적 협상과 그로 인한 사회정치적 흐름 안에서 개인 혹은 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실제 뉴욕 브루클린에서 성공한 멕시코계 미국인이 경영하는 공장장면과 더불어 보여준다.

II

김실비 b. 1981 서울, 베를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졸업 후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미디어아트 마이스터술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5년 이래 베를린과 서울을 기반으로 영상, 설치, 평면, 퍼포먼스 중심의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실비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비선형적 서사를 다층적인 시공간으로 구현한다. 인사미술공간, 스페이스 오뉴월,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미디어시티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시립미술관, 신 베를린 쿤스트페어라인, 리얼 DMZ 등지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http://sylbeekim.net>



육십진법에 따른 연애편지와 계시의 나날과 자매(A Sexagesimal Love Letter and Sisters in the Plutocratic Universe), 1채널 4K영상, HD변환, 컬러, 11'39", 2016

▶

〈육십진법에 따른 연애편지와 계시의 나날과 자매〉는 2016년 미디어시티 서울에서 선보였던 설치 작을 단 채널로 완성한 버전이다. 〈육십진법에 따른 연애편지〉는 60진법, 우주와 시간의 생성원리, 몸을 둘러싼 다양한 시대의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59항의 문구와 이미지가 연속되며 일종의 디지털 필사본으로 기능한다. 배경을 이루는 〈계시의 나날과 자매〉의 두 인물은 도시 공간 안, 탄생과 사멸을 둘러싼 제례에 몰두하며 신비로운 긴장감을 자아낸다. 그들의 몸은 일종의 음화(陰晝)가 되어 다양한 역사와 세계를 담는다. 한편 출연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연출되지 않은 순간이 삽입되어 작업의 이면, 실제 현실의 단면을 노출시키고 전체 구조를 교란한다.

II

김아영 b. 1979, 서울

김아영은 시간, 공간, 구조, 통사, 개념을 통틀어 모든 종류의 횡단과 이송, 이행, 이조, 호환에 집중하고 요소들간의 새로운 접합과 충돌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는 사운드 설치, 목소리 퍼포먼스, 드라마적 영상, 스크립트,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식의 내러티브 구조로 표현되며, 읽기, 쓰기, 듣기의 다른 방식을 환기하기 위해 이야기 장치와 수사학을 채용한다. 2017년 멜버른 페스티벌 (멜버른), 2016년 개인전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팔레 드 도쿄, 파리), 퍼포먼스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파리 오페라 극장, 파리), 2015년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모든 세계의 미래〉 등을 열거나 참여했다. 2015년 문체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고, 2010년 영국 로열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브리티시 인스티튜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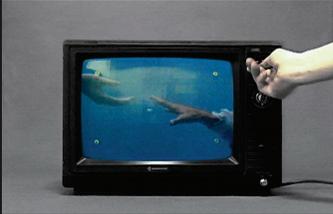
<http://ayoungkim.com>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셸3 (퍼포먼스 영상 버전) / Zeph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 3 (Performance Video Version), 1채널 영상, 2채널 사운드, 컬러, 40', 2015

▶

본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셸 Zeph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 시리즈 중 세 번째 버전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이다. “제페트 3”는 2015년의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본 전시 “모든 세계의 미래”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6채널 사운드 설치, 벽 다이어그램, 오프닝 기간 동안의 단기 퍼포먼스로 이루어졌다. “제페트” 시리즈는, 현대 음악을 만드는 김희라 작곡가와 함께 진행해 온 작업으로서 내러티브 사운드/음악극의 형식을 지니며, 서사를 이끄는 성우와 배우들의 목소리에 음악적 구성을 담당하는 보이스 퍼포머들의 코러스를 더해 목소리들의 다성적이고 혼성적인 직조에 무게를 실어 구현되었다. 시리즈의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각기 다른 형식을 지닌 독립된 프로젝트로 존재하는 본 작업은 인간 목소리의 중첩이 갖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 파고들며, 컨텍스트와 의미 구조를 지닌 언어 (리브레토 libretto)가 형식과 관련된 음악적 구성 안에 접목되었을 때 나타나는 충돌과, 이 충돌을 초월하는 제 3의 지점에 대해 탐구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맥락에 있어서의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에너지원으로 재발견되었던, 근대의 발명품으로서의 석유자원과 이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다양한 시공간 속 인물들의 형체 없는 목소리를 통해 소환한다.



접속 불량(Unorderable Connections), 1채널, 컬러, 6', 2006



옛날 옛적에 판문점(Once Upon a Time in Panmunjom), 1채널, 컬러, 47', 2013

II 김해민 b. 1957, 서울

김해민 작가는 1980년대 한국의 미디어아트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30년에 걸쳐 가상의 이미지를 현실공간에 드러내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영상설치 작업들로 주목받아 왔다. 그의 대표적인 <TV 해머>(1992), <신도안>(1994)은 2016년 아라리오뮤지엄 인스페이스에서 새롭게 선보인바 있다.
http://kimhaemin.com

▶ TV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사진, 영화, 기록영상 이미지들은 TV화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되고 반응한다. 그 조정되는 이미지들은 시대 상황과 교차되고 왜곡되면서 문명의 갈등 혹은, 이념의 충돌로서 나타나게 된다. TV 영상은 고정된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TV 프레임 밖 외부의 상황들과 조우하면서 조작되어지고 전복된다. 이렇게 전이된 이미지는 임의적으로 돌리는 채널 속에서 상호 관계하거나 부딪히는 변모된 이미지로 파생되어가고 그러면서 TV화면 밖 외부 상황을 주시하게 만든다.

▶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 정용에서 고향 판문점으로 살아 돌아온 유완옥(당시 25 세)은 고향 할아버지로부터 곧 전쟁이 닥치게 될 터이니 피난처를 찾아 고향(판문점)을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곳으로 가야만 삶을 도모하고 후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혼돈의 시대 한복판에 서 있던 25 살의 젊은 유완옥은 고향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혼란스러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믿게 되고 처와 자식을 버리고 빌어먹는 방식으로 심승지(정감록에 나오는 10 군데의 피난처)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다. <옛날 옛적에 판문점>은 2000 년과 2001 년 두 번에 걸쳐 찍은 유완옥 (당시 80 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판문점이 고향인 유완옥이 자기 삶의 극절과 판문점 지명에 얽혀있는 미래의 예언들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의 기록영상이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한국 역사의 불운한 시대를 관통하는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 역사에 대한 반성과 한 인간의 송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II 무진형제 (정무진·정효영·정영돈)

무진형제는 정무진(B. 1979), 정효영(B. 1983), 정영돈(B. 1988) 세 명으로 구성된 미디어 작가 그룹이다. 각각 문예창작, 조소, 사진을 전공하였다. 무진형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낯설고 기이한 감각과 이미지를 포착해 우리 삶의 새롭고 낯선 지점을 조명하는 작업을 한다. 노동자, 작가, 청년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미술적 방식으로 재구성해 그로부터 다채로운 예술적 의미를 포착한다. 아울러 우리 삶에 깊이 감춰져 있던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역사적 탐색, 고전 텍스트의 재해석 등을 영상언어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개인전으로는 <속인의 밀담>(스페이스 오뉴월-이주현, SEMA-신진미술인, 2016), 단체전으로는 <공감오류:기꺼운 만남>(아트스페이스 폴, 2016), <18th FESTCURTAS BH>(Minas Gerais, 브라질, 2016), <29th European Media Art Festival>(Osnabrück, 독일) 등에 참여했으며, 2016년 POOLAP과 SEMA-신진미술인에 선정, 2015년 NEMAF 최고구매상을 수상하였다.

▶ 한 남자가 철거된 마을의 사연과 이토이토(以土以土(흙이 되다, 흙이 되다: 만물을 포용하는 어머니 대지에 착안해서 지은 이름), eetto eetto) 할멈과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영상 속 이야기들은 실제 신도시 개발로 인해 폐허가 된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개발논리에 의해 파괴된 곳에서 시작된 삶에 대한 의문은 곧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진 폐허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체화 된다. 이토이토 할멈과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망각과 외면이 아닌, 각자의 삶의 기억과 이야기로써 기억하고 전하고자 한다.



There was a weird mountain at the center of the river, it is sometimes called 'Gui mountain(Ghost Mountain)

더미(The Heap), 1채널, 흑백, 8'56", 2015



고주춤 놀이(Elastic Cord Playing), 1채널, 컬러, 7'45", 2008

II

박병래 서울

박병래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과를 졸업한 후 독일 카셀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을 전공하였다. 시각예술가로 개인을 둘러싼 공간, 기억, 놀이, 무의식의 이미지들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비디오 영상물 통한 분절되고 어긋난 시간과 공간의 레이어들의 서사 형식으로 오늘날 혼재된 이미지와 함께 살아 가는 개인의 사(私)적인 이미지들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탐구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Elastic Cord Playing>(2008), <Zeboriskie Point>(2011), <화포異景>(2014), <Jutlandia>(2015) 등이 있다. 현재 국내외 미술전시와 비디오, 필름 페스티벌을 통해 개인 작품 활동과 더불어 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함께 겸하고 있다.

<http://www.byounglae.com>



<Elastic Cord Playing>은 작가 자신인 ‘나’의 또 다른 모습, 내 속의 또 다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합일의 측면과 분열적인 측면을 일렁거리는 거울장치를 통해 환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맞닥뜨린 대상이 ‘나’와 동일자임을 인식하는 과정과 동시에 ‘나’로부터 독립적인 또 하나의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끊임없이 변주를 반복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난한 여정의 정서를 형상화했다.



행운의 편지(Chain Letter), 6채널, 컬러, 5'55", 201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Blossomed, The Rose of Sharon), 2채널 설치, 컬러, 8'56", 2013

II

안정주 b. 1979, 서울

안정주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아트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안정주는 영상, 사진,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 작업을 통해, 사회와 제도 그리고 점차 무감각해지면서 간과하기 쉬운 현실에 주목해왔다. 익숙한 외관을 전혀 다른 감각들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의 작업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현실을 재발견 하도록 작용한다.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Kunstlerhaus Bethanien GmbH(베를린), International Artists Studio Program(서울), HIAP Artists-In-Residence(헬싱키) 레지던스 작가를 거쳤다.

<http://www.anjungju.com>



<행운의 편지>는 2004년 세계 여행 중 촬영해 작업으로 쓰고 남아있던 영상클립들을 사용한 6채널 비디오와 76장의 낱말카드를 이루어진 작업이다. ‘행운의 편지’는 수신자가 지정된 기간 안에 편지를 전달하면 행운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로 알려져 있다. 안정주는 ‘행운의 편지’ 구조와 내용을 이용하여 76개의 편지를 76개의 소리-이미지로 바꿔 그만의 새로운 언어구조를 만들었다. 소리-이미지로 새롭게 쓰여진 <행운의 편지>는 각각의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인쇄된 낱말카드를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듯 소리-이미지를 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수많은 오독의 가능성까지 포함하며, 안정주가 그의 작업 안에서 소리와 이미지 사이에서 만들어진 의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솔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뒤를 도는 순간, 아이의 동작은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면서 복도를 걸어오는 관람자를 찬찬히 관찰하는 것만 같다. 하지만 솔래는 관람자가 움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은채 다시 고개를 돌리고 놀이를 반복하며, 시간은 원래의 속도로 되돌아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움직이는 관객을 작품으로 수용하기 위해 작가가 놀이의 규칙과 시간의 흐름을 변경하자 새로운 규칙이 생겨났다. 솔래는 화면 속의 어린이로 고정되고, 스크린을 향해 다가가거나 멀어지는 관람자는 영원히 솔래가 될 수 없다. 이 놀이의 유래로 거론되는 속설들 중 어린이들에게 국화를 알려주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무궁화 꽃을 놀이의 이름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제 게임의 규칙은 달라졌고, 무궁화 꽃은 더 이상 본연의 역할을 행할 수 없다. 동일한 영역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만날 수도, 서로의 역할을 맞바꿀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서울 데카당스-라이브(Seoul Decadence-Live), 1채널, 컬러, 55', 2014

II 옥인컬렉티브

(이정민·김화용·진시우·강신대)

이정민, 김화용, 진시우, 강신대로 구성된 옥인 컬렉티브는 2009년에 열린 첫 프로젝트의 장소이자 지금은 철거된 종로구 옥인아파트의 지명을 딴 작가 그룹이다. 이후로 주변에서 쉽사리 발견되는 무수한 '옥인'을 기억하며, 척박한 도시공간 속의 연구와 놀이, 예술과 사회의 관계, 예술과 향유자의 위치와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독 전시인 '옥인 오픈 사이트'(옥인아파트 2010),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부산시립미술관 2011), 'Open Hangar'(스페인, 2012), 'Truth is Concrete'(오스트리아, 2012), 'Acts of Vocing'(토털미술관, 2013), '페스티벌 불(2014)', '광주 비엔날레'(2014), '아트팩트 페스티벌 15(STUK, 벨기에, 2015)', 'Rien ne va plus? Faites vos jeux!(드 아펠 아트센터, 2016)' 등 많은 국내외 전시와 프로젝트,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2010년 9월부터 '옥인 컬렉티브 인터넷 라디오 스테이션 STUDIO+82'(http://okin.cc)를 운영하고 있다.

http://okin.cc

▶ 옥인 컬렉티브의 <서울 데카당스-Live(Seoul Decadence-Live)>는 이전 작업인 <서울 데카당스(Seoul Decadence)>의 확장판이자, 콜트콜텍 노동자 연극 '구일만 햄릿'의 거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콜트콜텍에서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복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밴드의 일원이 되고, 때로는 연극 배우가 되는 변화를 겪어왔다. 옥인 컬렉티브는 '구일만 햄릿'의 배우인 이민근, 임재춘 그리고 이 연극의 공동 연출인 진동젤리의 권은영과 매운공을 배우우 캐스팅한다. 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워진 사건들로 가득 찬 서울, 그리고 그 속에 자리잡은 1940년대에 지어진 폐공장에서 실행된 전시/퍼포먼스에서 관객은 스스로의 감각에 의존해서 동선을 발굴할 때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농산자본가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경작지를 새로 만들면서 광범위하게 숲을 불태우고 있다.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팜오일'(Made in Malaysia 'Palm Oil'), 1채널, 컬러, 13' 20", 2017

II 이완 b. 1979, 서울

2004년 동국대학교 조소전공 졸업. 2005년 <중앙 미술대전>에 참여했다. 구조와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에 불가항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 형식의 작업을 통해 보여주었다. 현재는 마트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한 음식들이 썩어가는 풍경을 촬영하는 미디어 작업 등으로 주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2009-2010년 아르고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작가로 선정되었다.

http://www.leewanstudio.com

▶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팜오일'>은 작가의 메이드인 시리즈 12개국 중 한편이다. 메이드인 시리즈는 한끼의 아침식사를 제작하기 위해 아시아 12개국을 돌며 직접 생산자가 되는 프로젝트이다.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출품종 하나인 팜오일을 직접제작하는 과정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현재의 정치 경제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아시아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전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II

장서영 b. 1983, 서울

장서영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Art in context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장서영 작가는 조소를 전공했으나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는 사회나 시스템 같은 구조적인 틀 안에서 개인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해체되고 무효화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개념을 조형적인 재료로 이용하여 비물질적인, 관념적인 조형성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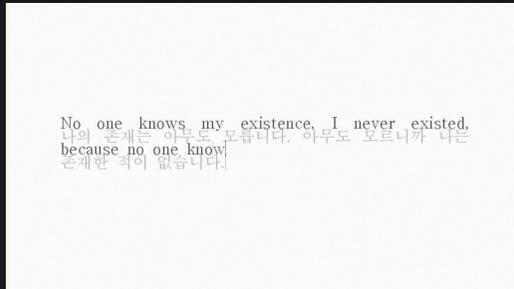
<https://www.changseoyoung.com/>



장서영의 작품들은 ‘인지’로 인해 생성되는 관계와 상호작용으로부터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질의를 끌어낸다. 그의 작품 <In the box>와 <Box> 속의 화자, 또는 타이핑으로 구현된 언어들, ‘내가 인지되지 못하는 상태’가 초래하는 자신의 비존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곧 존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절망적인 이 명제는 사회적 관계에 근거하여 비로소 실존할 수 있는, 결코 홀로 절대적이지 못한 ‘존재’에 대해 환기한다.



In the Box, 1채널, 컬러, 1'26"



Box, 1채널, 컬러, 2' 45", 2011

II

전소정 b. 1982, 서울

전소정은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학과를 졸업했다. 작가는 삶 속에서 포착한 시간의 개념과 감정의 경험에 주목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연극적인 구성과 무대, 퍼포먼스와 설치, 고전 텍스트를 차용한 내러티브 등을 통해 미시적 서사로 그려낸다. 리움 삼성미술관(2012), 서울시립미술관(2015), 광주비엔날레(2016) 등에서 열린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6년 파리의 빌라 바실리프-페르노리카 펠로우십, 2016년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을 수상했다.
<http://junsojung.com>



<Three Ways to Elis>는 한 사람을 기억하는 세 명의 진술을 통해 사적 경험과 기억, 그리고 그 간극을 드러낸다. 50년간 숲 속에 마을을 짓고 살았다는 무용수 Elis는 주변 사람들에게 각자의 기억으로 존재한다. 그들의 인터뷰, 작가가 직접 체험한 숲, 그들이 꿈꾸는 숲 속의 무용수에 대한 바람은 한데 뒤섞여 내밀한 환타지가 된다. Elis는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서 궁극의 예술적 완성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삶 속에서 투쟁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한다. 그것은 기이한 삶을 사는 예술가들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과 절대적 권위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보편의 이야기가 된다.



Three Ways to Elis, 1채널, 2.1채널 사운드, 컬러, 22'14", 2010

II

정연두 b. 1969, 서울

정연두는 서울 대학교 조소과와 영국 골드 스미스 컬리지를 졸업 하였으며, 대표작은 〈보라매 댄스홀〉, 〈내 사랑 지니〉, 〈윈더랜드〉, 〈도큐멘터리 노스탈지아〉 등이 있다. 주요 참여 전시로는 '2002년 상하이 비엔날레',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2009 플랫폼-기무사', 'Performa 2009', '2012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등이 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2002년 '제 2회 상하이 비엔날레 아시아 유럽 문화상'과 2007년 국립 현대 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2008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이 있다.

▶

일본 이바라키 현의 미토시는 후쿠시마 원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작가는 우연히 시라토리 켄지라는 한 시각장애인 사진가를 만난다. 작가가 그 사진가에게 그의 낡은 카메라를 대신할 새 카메라를 선물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이 시작되었고, 카메라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작가에게 1년간 그가 집과 직장을 오가며 찍은 80,000여 장의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작가는 사진들 중 1,500장을 골라, 시라토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의 유명 피아니스트 오조네 마코토가 작곡한 연주곡 '와일드 구스 체이스'에 맞추어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산능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미토 시민들과, 앞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씨가 매일 일 년 동안 기록한 사진들은 상징적으로 영상 속에서 대조를 이룬다.



야생거위사냥(Wild Goose Chase), 1채널, 컬러, 4'49", 2014

II

정은영 b. 1974, 서울

정은영은 이화여대와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시각 예술과 페미니즘을 공부했다. 정은영의 작업언어는 비디오, 공연,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적 시도를 통해 여성주의, 성별정치, 수행성과 정동이론을 가로 지른다. 〈변칙 판타지〉(드라마센터, 남산아트센터, 서울, 2016), 〈틀린색인〉(신도문화공간, 서울, 2016), 〈전환극장〉(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2015) 등의 6차례 개인전과 〈2 or 3 Tigers〉(세계 문화의 집, 베를린, 2017), 〈Polyphonies〉(종피두센터, 파리, 2016), 〈Gestures and Archives of the Present, Genealogies of the Future, 타이페이 비엔날레 2016〉(타이페이, 2016), 〈달은 차고 이저러진다〉(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6) 등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http://sirenjung.com/>

▶

〈정동의 막〉은 사라져 가고 있는 여성극극 전통의 끝자락에 남겨진, 거의 마지막 세대로서의 갈등과 내적 투쟁을 경험한 젊은 여성극극 남역배우를 조명한다. 이 작품은 15분 가량의 단채널 비디오로 제작되며, 1회의 퍼포먼스를 동반한다. 배우는 무대에 서기까지 관계하는 모든 시공간에서 지루함에 가까운 반복적인 훈련의 행위를 통해 남성성을 수행하며, 서서히 남성이 되어간다. 이 '되어감'의 과정을 밀착적으로 추적, 포착하는 이 작품은 또한, 한 남역배우의 고민과 갈등을 끌어안은 채로 분출하는 비언어화된 어떤 뜨거운 이끌림과 열망/정동에 감응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정동의 막(Act of Affect), 1채널, 컬러, 15' 36", 2013

II

조영주 b. 1978,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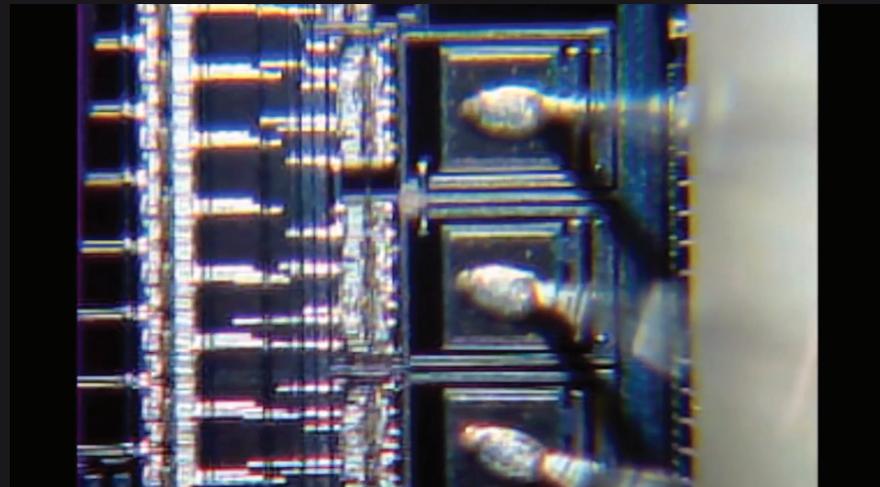
조영주는 파리, 베를린, 서울을 오가며, 프로젝트와 전시기획, 예술연계프로그램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작가이자 독립큐레이터이다. 그동안 다양한 전시를 통해 퍼포먼스, 설치, 사진, 비디오, 사운드, 댄스 등의 작업을 보여왔다. 2001년 성균관대학교 서양학과, 2007년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이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수학하였다. 2009년 베를린의 골드라우쉬 예술가프로젝트 'Goldrausch Künstlerinnen-projekt art IT' 를 비롯해, 2010년 경기창작센터, 2008/200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2014년 베를린 세나트(Berlin Senate), 2010년 독일 ifa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2013년 서울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2014년 서울문화재단등의 지원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5년부터 국제미술그룹인 글로벌 에일리언(Global Alien)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여러나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참여 하였고, 2014년 루와알심 프로젝트(주한프랑스문화원,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문화공장오산 후원), 2013~2014년 Halhalproject(스페이스 매스 후원, 작가이자 이론가인 Klega와 협업)를 진행한 바 있다.



DMG 비무장 여신들(DMG Demilitarized Goddesses), 1채널, 컬러, 8'51", 2015



중년 여성들과 제작한 댄스 작업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이들은 주로 선을 보고 결혼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 막 갱년기를 거치고 자식들을 출가시켰지만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작업 <DMG 비무장 여신들 (Demilitarized Goddesses)>는 철원 디엠지 안보관광해설사 일곱 분과 함께 제작하였다. 해설사로서 이들의 역할은 관광객들에게 DMZ 내 군사시설이나 전쟁의 역사와 흔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철원 지역민 대부분은 전쟁 후 정부의 장려정책으로 이 곳에 이주해와 지리발을 농토로 일구어 내었다. 그 시절을 겪어온 철원 여성들의 일생은 어떠했을까?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들이 DMZ 내 여러 장소에서 고요하게 춤을 춘다. 전쟁과 남북의 긴장에 대해 설명하던 장소가 잠시, 색다른 경험의 장소가 된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름답게 DMZ를 거니는 이 여성들에게서, 분단의 상황과 그 한 가운데를 삶의 터전으로 가진 한국 여성의 일상이 오버랩 된다.



Swarm Circulation, 1채널, 컬러&흑백, 10'18", 2016

II

주연우 b. 1984, 서울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을 졸업한 작가는 '카메라 없이 영화 만들기'를 실천하며 아카이브 푸티지를 활용한 실험 영상을 만든다. 작가는 주로 기술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변화에 관심을 두고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영국 알케미 영화제(Alchemy Film & Moving Image Festival), 미국 앨버커키 실험영화제 (Experiments In Cinema), 전주국제영화제 등에서 소개되었다.



<Swarm Circulation>은 아카이브 푸티지를 활용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한다. 작품은 텔레비전의 시대별 제조 공정, 전자제품을 광고하는 영상 이미지들, 그리고 제 3 세계 지역에서 전자폐기물을 소각하는 장면들로 구성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이미지의 결합과 충돌을 통해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허구 적인 환상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묻는다. 그리고 기술의 소비와 관련하여 익숙하게 접하는 (광고) 이미지의 밖에 있는 감추어졌거나 외면되어 잘 인식되지 않는 사실들을 들여다봄으로써 기억 혹은 인식체계를 재구성한다.

II

최성록 b. 1978, 서울

최성록은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였다.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작업을 통해 뉴미디어 기술에 의해 보여지는 동시대의 풍경과 사건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지에 관한 탐구를 이어왔으며, 발달되어 가는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 변화에 집중한다. 아트 스페이스 휴(2006), 피츠버그 아트센터(2011), 갤러리조선(2015)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난지 창작 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1년 뉴욕 AHL Foundation 시각예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 2017년 VH 어워드에서 최종 3인에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http://sungrokchoi.com>

▶

〈I Will Drone You〉는 우리의 현실 공간에서 흡사 유령 같은 카메라 기계인 드론을 통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풍경에 대한 몽타주 작업이다. 그와 동시대 인간에 의해 조정되어 날 수 있는 드론이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드론에 의해 현실 공간에서 관찰되는 인물은 마치 컴퓨터게임의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 움직이던 가상적 캐릭터처럼 현실 공간에 존재한다. 이 영상 작업은 실제 공간 안을 움직이는 캐릭터(작가 본인)의 모습을 드론을 통해 실제로 촬영한 비디오이며 뉴미디어기술에 의해 생긴 가상적 공간과 실제적 공간의 모호한 경계를 배회하는 동시대 인간의 모습에 대한 작업이다.



〈I Will Drone You〉, 1채널, 컬러, 2' 34", 2015

II

최윤석 b. 1981, 서울

최윤석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를 졸업한 뒤 2011년 런던 소재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Slade School of Fine Art,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개인전 〈그의 부동산 목록〉(스페이스오뉴월, 서울, 2015)과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6〉(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6), 〈Please Return To Busan Port〉(베스트포션 미술관, 오슬로, 노르웨이, 2016) 등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벨기에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과 퍼포먼스, 상영회를 가진 바 있다.
<http://www.yoonsukchoi.com>

▶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막 부흥기를 맞이하는 때를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실제로 기억이 없을 뿐더러 역사적인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물론 사료를 통해 그 시대에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좀처럼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감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가족, 특히 부모와 조부모와의 기억은 그 때가 어땠을지 어렵פות이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나 집 안에서 들었던 소리와 풍경은 아직 선명하다. 어른들의 말버릇과 행동들에 대한 기억은 내가 존재하지 않던 시간과 현재의 나를 연결해주며 낯선 시대에 대한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김씨 연대기(김인근과 협업), (Chronicle of Mr. Kim(In collaboration with Ingeum Kim)), 1채널, 흑백, 9'28", 2013

II

엘리 허경란 b. 1976, 서울, 런던

엘리는 주제 대상과의 충돌, 친밀감, 그리고 민감성의 관계 변화를 추적하며 그 대상의 다큐멘터리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실험 영상을 만든다. 그를 통해 그 대상과 관람자, 그리고 작가 자신 사이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공간 창출을 시도한다. 그녀의 최근 작업은 영국 위스터블 비엔날레, 화이트채플 갤러리, 사우스 런던 갤러리, 그리고 다수의 국제 예술 영화제에서 전시 및 상영되었다.
<http://www.elliekyungran.com>



잔치국수는 멸치 국물에 밀가루 소면을 넣고 얇게 채 썬 쇠고기, 계란지단, 야채를 얹은 한국식 국수 요리이다. 이 요리는 전통적으로 결혼 피로연 및 생일 파티와 같은 행사에서 국수가락처럼 오래 잘 살라는 의미에서 차려진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한국어로 연회를 뜻하는 '잔치'와 장수를 상징하는 '국수'로 구성된다. 이 영상은 손님들이 잔치국수를 먹으며 서로간에 기쁜 인생을 오래 바라는 축하 파티로 끝난다. 한편 카메라는 그 파티에서 더 이상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발견한다.



잔치국수(Janchi Guksu (Banquet Noodle)), 1채널, 컬러, 4'18", 2016

VIDEO PORTRAIT

TOTAL MUSEUM × THE STREAM
OF CONTEMPORARY ART Korean Video Art Archive